



이제 나는
무적이다



아마구치...



그... 그래.

항상
연습하더라,
빗자루로...



맨날 육상부에서
달리기만 하니까
모르겠지?
점핑 잭 플래시
같은 건...

그...
그래.



뭔가 쳐줘.



그...
그래.

기타
샀구나?



기타아?



술집에서 노래하는
땀따라나 되려고?
술가게 아들은
술 배달이나
하면 돼.

기타 사줘.



헛소리 말고
술 배달이나
갔다 와!



기타
사줘어-!

소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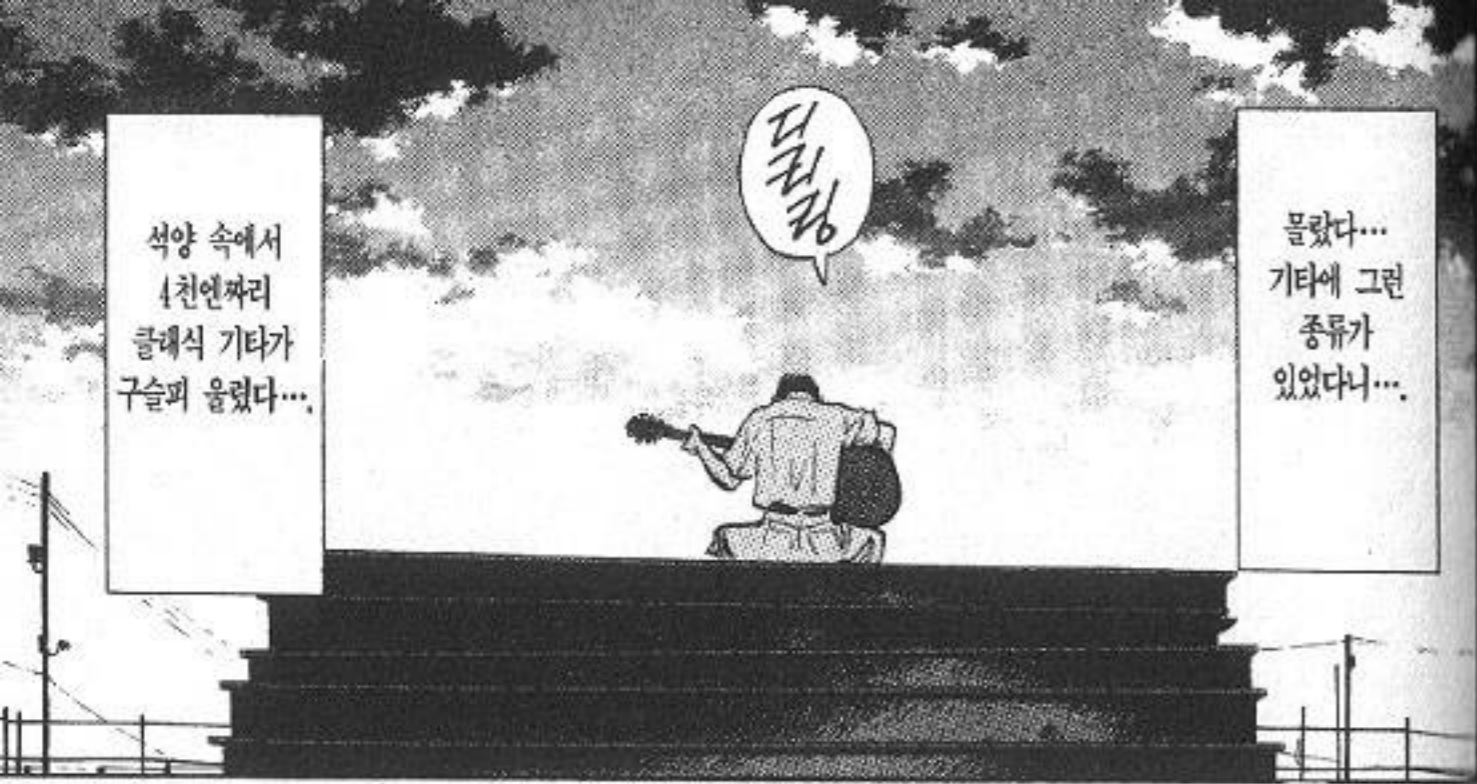
4달동안
용돈을 모아서,
전당포에서 팔던
4천 원짜리 기타를
드디어 손에 넣었다!



석양 속에서
1천엔짜리
클래식 기타가
구슬피 울렸다...

피워깡

몰랐다...
기타에 그런
종류가
있었다니...



자깡
자깡



요즘
점핑 잭 플래시
같은 걸 치는 놈이
어딴냐.

아...
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형.

1979년-



자깡
자깡



다...
다음에...

으... 아...
저기...



쳐 줘.

그럼,
기본인걸.



아... 알아?
아마구치!

롤링 스톤즈도
칠 줄 아니?



하지만
기타
종류가...

왼손 손끝에
굳은살이
박히도록
연습하면
질 될 거야.

종류?



뭐... 뭐가
이상해?

후후후
...



그건 클래식
기타야.

점핑 잭 플래시를
치려면 보통은
포크 기타
아니니?

전기 기타는
비싸니까
못 산다손
쳐도...



기타는
기타지!



그런 녀석이 없어서 말아...



뭐랄까, 키스 리처드나 미크 테일러처럼 칠 수 있는...



ZZZZZZZZZZ



왜 밴드를 하고 있지?

너는.



아... 예.



켄지.



무도관을 딱 메운 관객 앞에서 연주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50만명... 은 무리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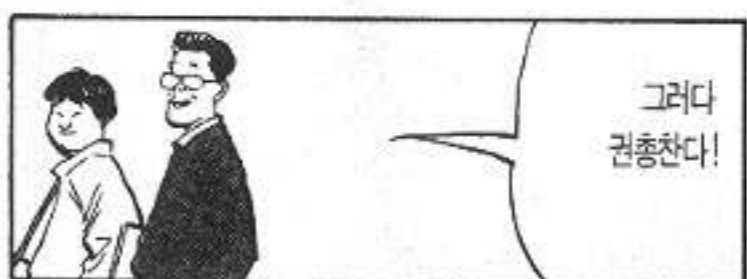
해도...

왜냐고...



모르죠, 뭐.

띠딩 띠딩



그러다 권총찬다!



아아, 난 됐어...



아- 난 됐어.

켄지- 4교시 경제원론 안 듣나?



그 밴드는 틀렸어...

어? 최고잖아요. 플라잉 스파이더스.



스파이더 형은 이제 데뷔한다면서요?

응...? 아아...



그... 그럼 혹시...



좋은 기타리스트가 없어서...



1997년 -



「독수리 오형제」를 세번이나 부르고...

또 가라오케 따위나 불렀어...



으...



우-

칸나, 옛날엔 있지. 내 왼손은 온통 굳은살이었다...?



우-



별로 진지할 건 없지만,

아... 아노.



너, 그거 진지하게 하는 소리냐?



좋지...

그것도 ...



무도관을 메운다...



한편 나는...

자강 자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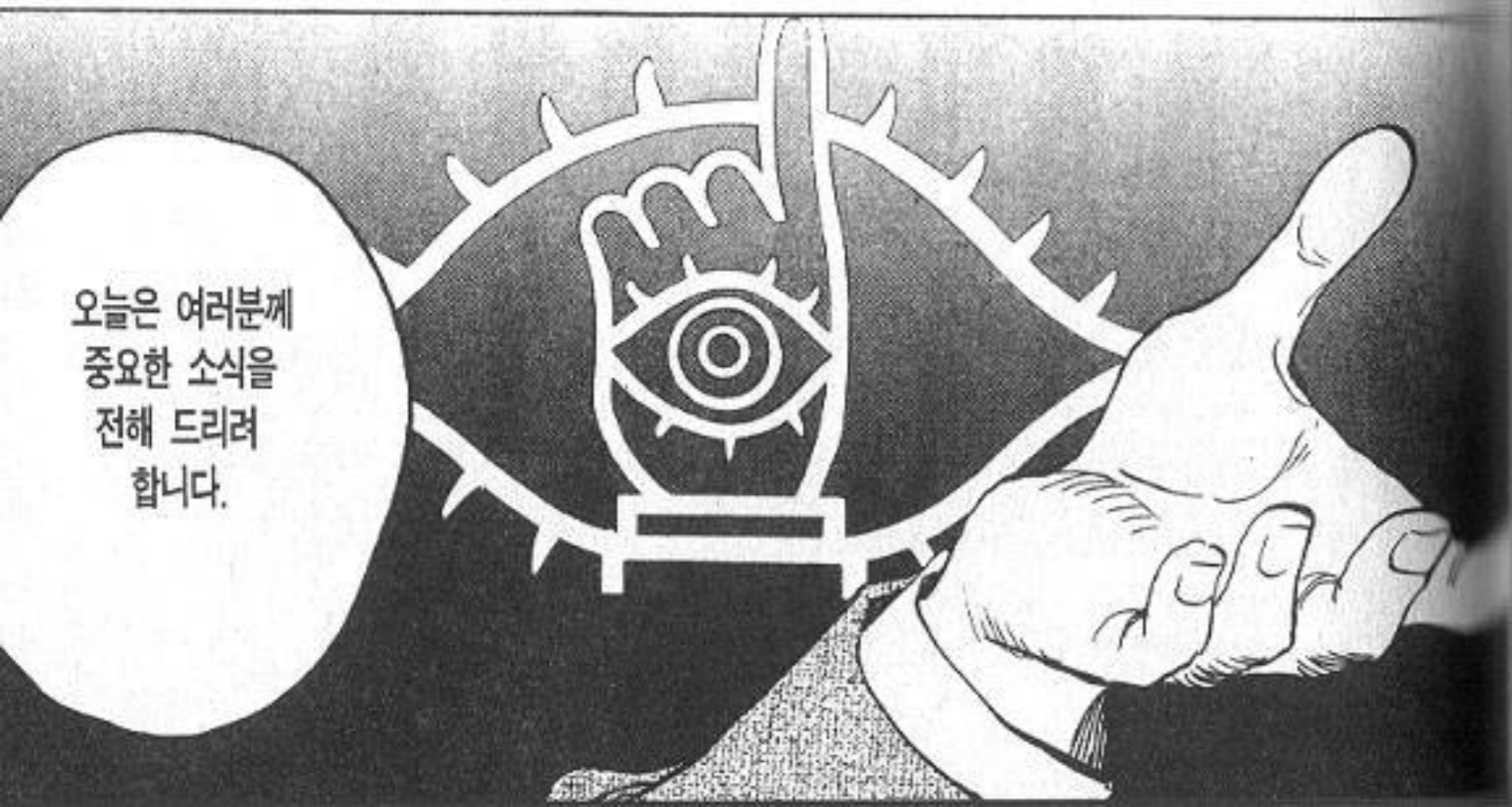


그로부터 3년 후...

스파이더 형은 무도관을 가득 메웠다...



기타...





켄지!!



새삼스레
실빨이 있나,
왜 험레발씩
뛰고 그래?



켄지!



그게 아니라!
신문 봤어,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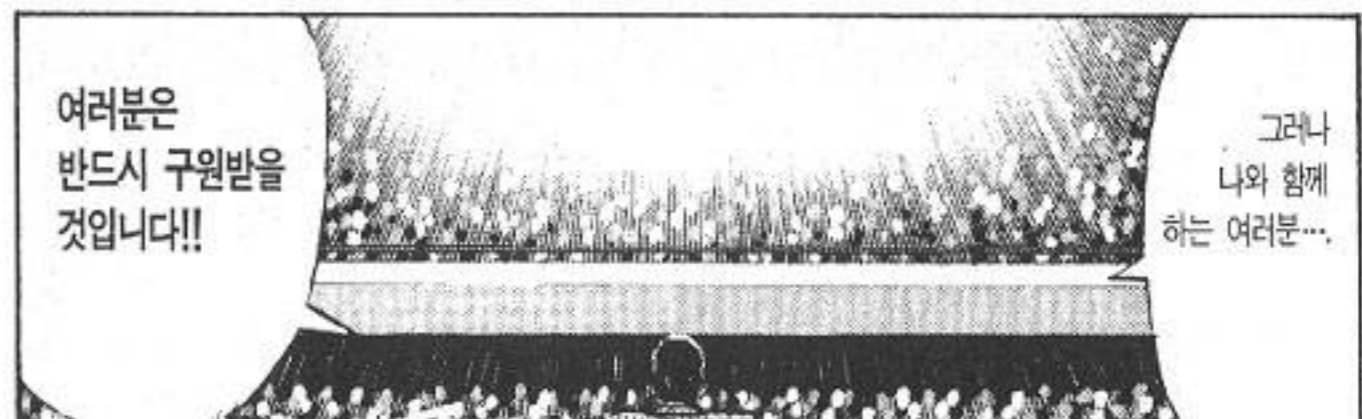
잔소리 말고
이걸 봐!

얌체짓
하지 말고
사서 봐.

제4화 코짹짹이 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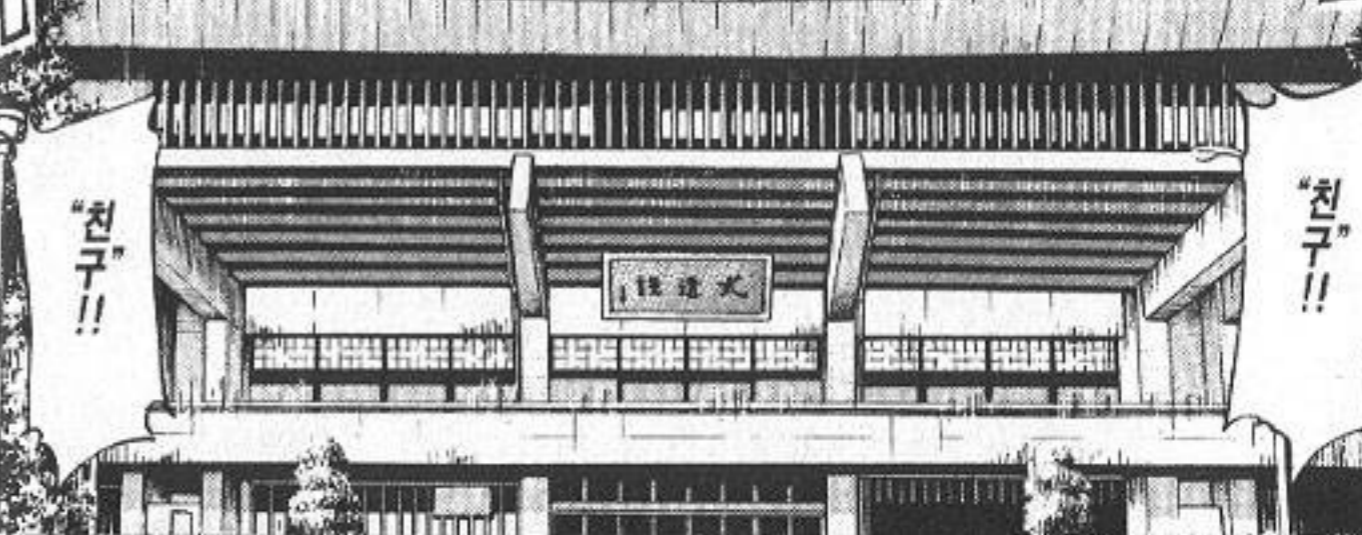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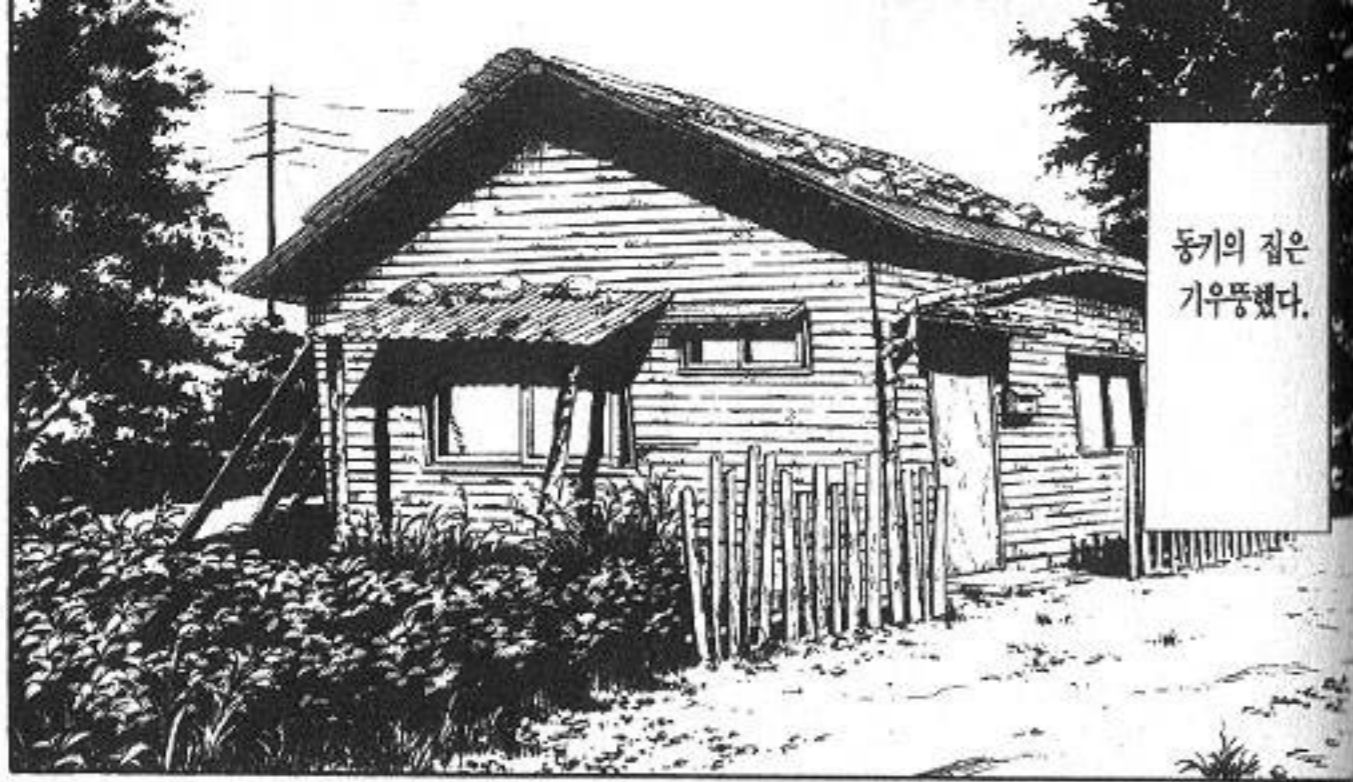
얼마 안 있어
이 세계는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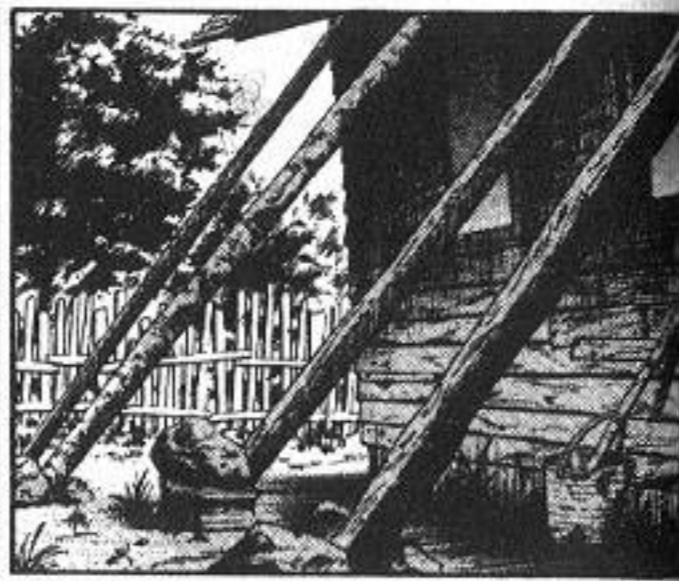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는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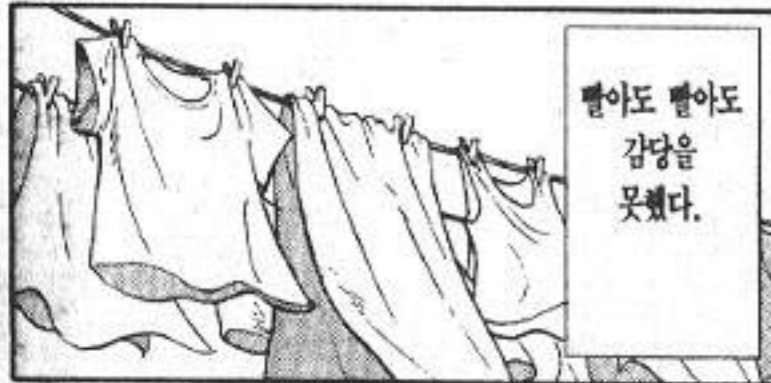




동키의 집은
기우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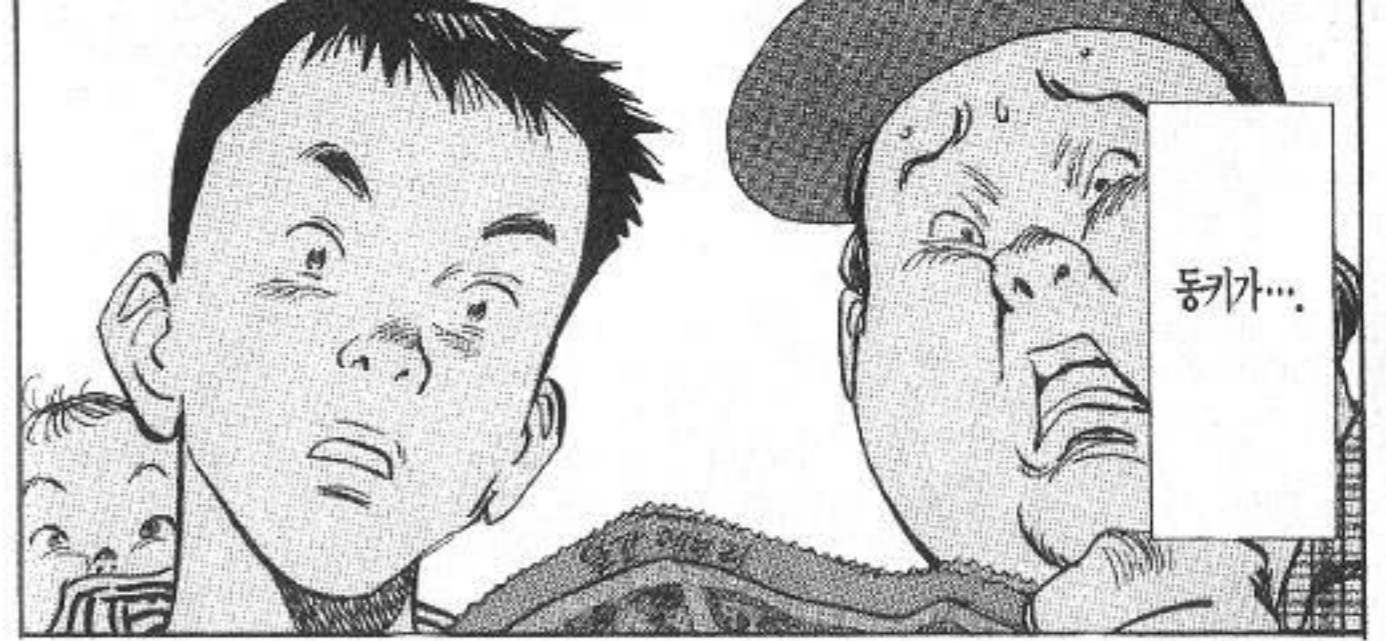
그래서
동키의 엄마는
언제나 빨래를
했다.



빨아도 빨아도
감당을
못했다.



어떻게 그 좁은 집에
그 많은 형제자매가
살았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동키가...



죽었다...

죽었다...
투신자살 피사
그무척인 학교 옥상에서

제4화
코짹짹이 수건



자아, 역시
정의의 레슬러가
승리를 거둘
것인가?
마보에게 터치!



우아- 아-!



이아-!



우아-!



오...



동키의 수건은
코펠펠이
수건.



나...
나왔다!

타아-!!



프로레슬링
연습상대였다.

으-!

동키는 언제나
사상최악의
쌍둥이
안보·마보의



캐나디언
백 브레이커!

이... 이거
끝났군요!
마보의 필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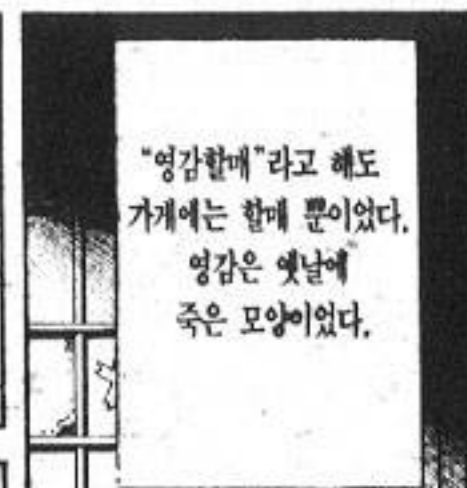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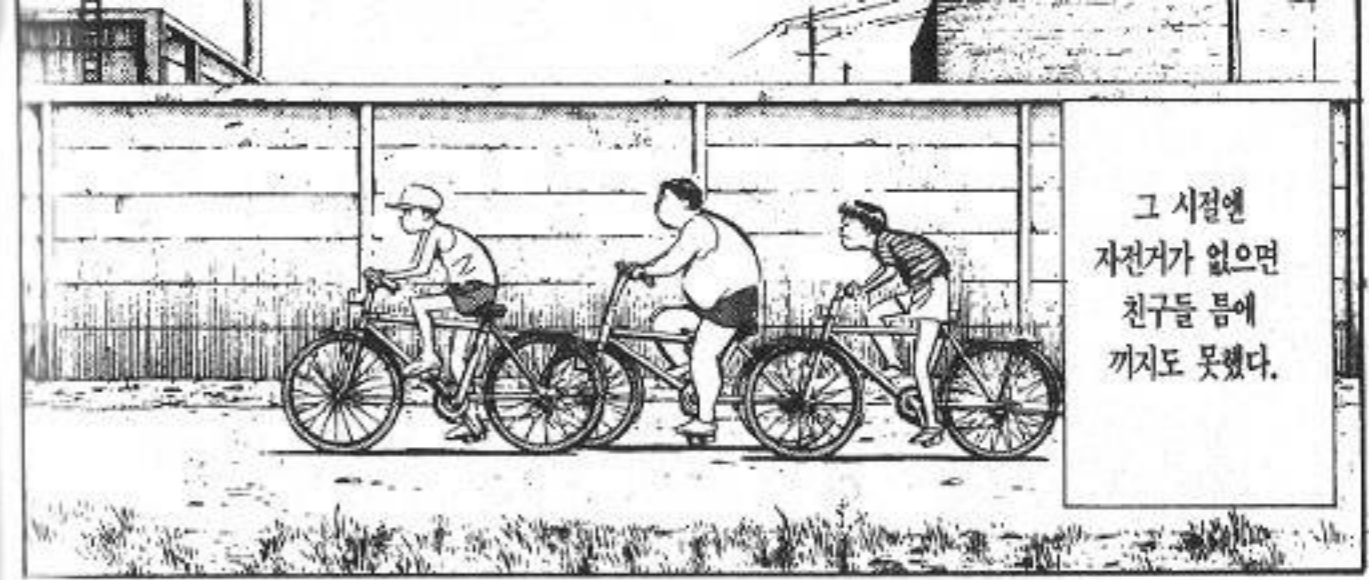
우아-
안보, 연이어
필살기
4자조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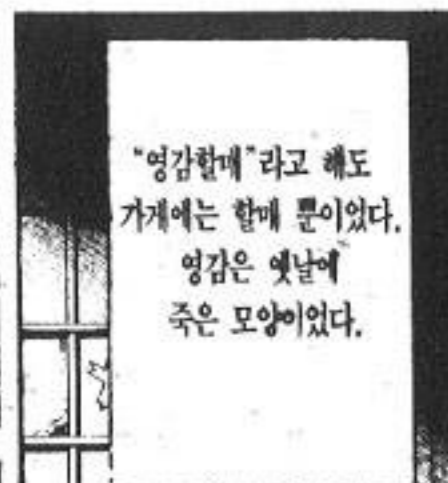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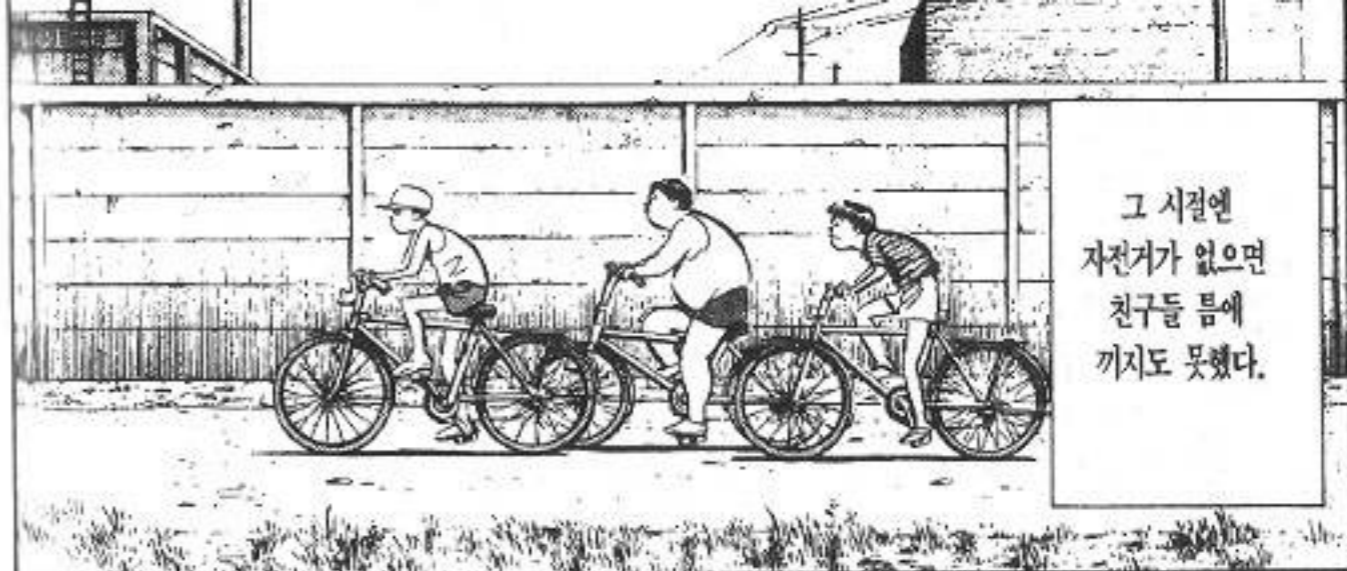


여기서 안보의
무시무시한 16문 킥
작렬-!



일어서느냐?
동키,
일어서느냐?







야, 요시츠네!
진짜 본 거 맞지?

내가 본 건 아냐.
요시다의 친구의
친구가 봤대.



으!
여기만은 자전거가
불편하다니까.

끼깅
끼깅



역시 진짜 있구나!
이 사리구멍
에는...

사리구멍에서
엄청난
물보라가
일어나더라.



전설의 거대한
괴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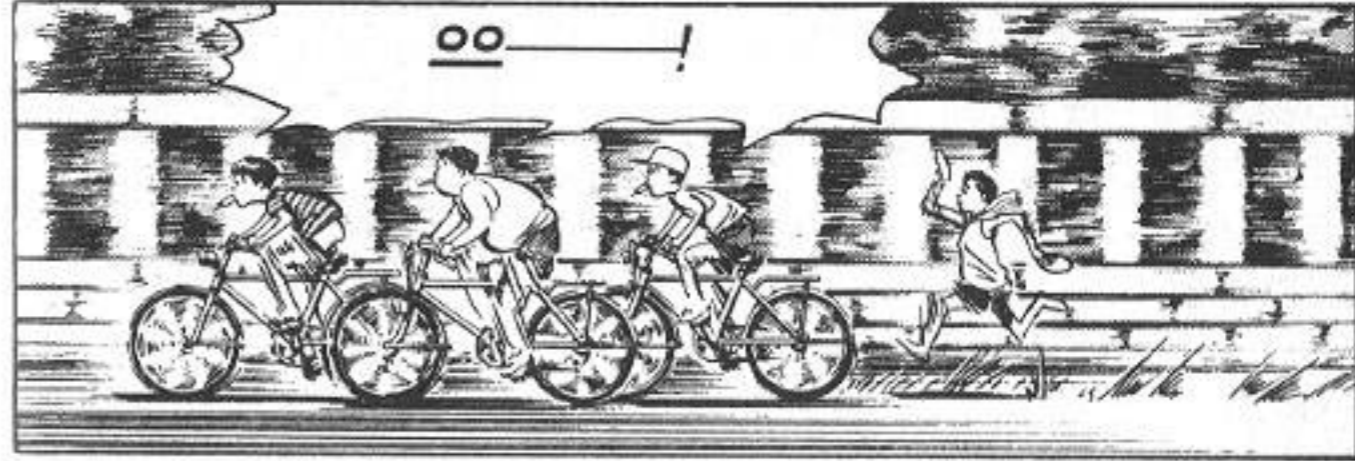


이!

이!



맨발로 뛰는
동키의 스피드는
그야말로...



으!

● 친구들과끼리 사리구멍에 가지
않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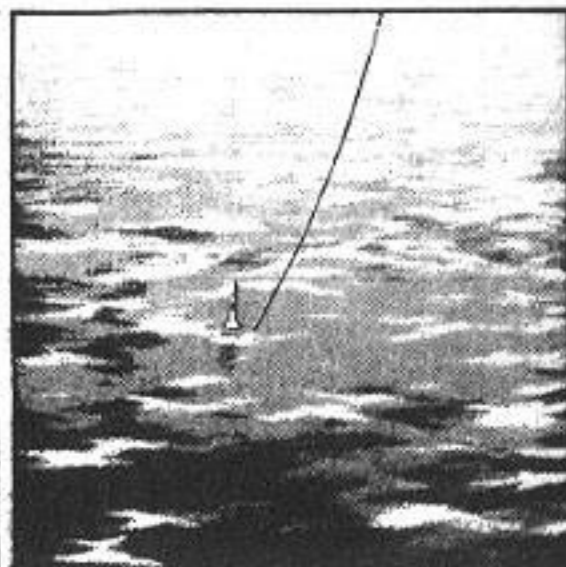


아주 위험한
곳이었다...

사리구멍이란
사리를 채굴한 자리에
빛물이 고여서
생긴 못으로...

- 여름방학에 자갈을
굴러서 빈 양호함을
합시다.
- 물을 꼭
끓여 마시십시오.
- 안전모를
항시 합시다.
- 친구들과끼리 사리구멍에 가지
않습니다.

여름방학이면
학교에서 이런
가정통신문을
나눠 줬다.





아...



누...
누굴...



스쿠르르르

우와아!!



스쿠르르



모...
못 올라
가겠어...



뭐?



으아-!



무!



좀만
참아!

얼른 저기
사무소에 가서
어른을
불러 올게!



못 올라
가겠어-!

빨리
들어간다
-!



으아-!!



왜 그래-?!

왜...



아아~!



위해!
빨리 좀 가!



누굴 불러와
줘-!

빨리
누굴~!



모...
못 올라오다니,
어... 어쩌란
말야-!



...

밧줄 가져왔어.

아무도 없어.



혼자 돌아오면
어떡해!
어른을 불러 와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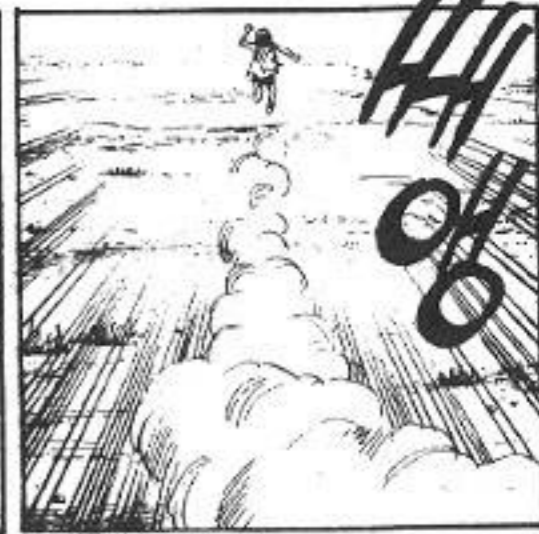
이걸 잡아-!



안
달잡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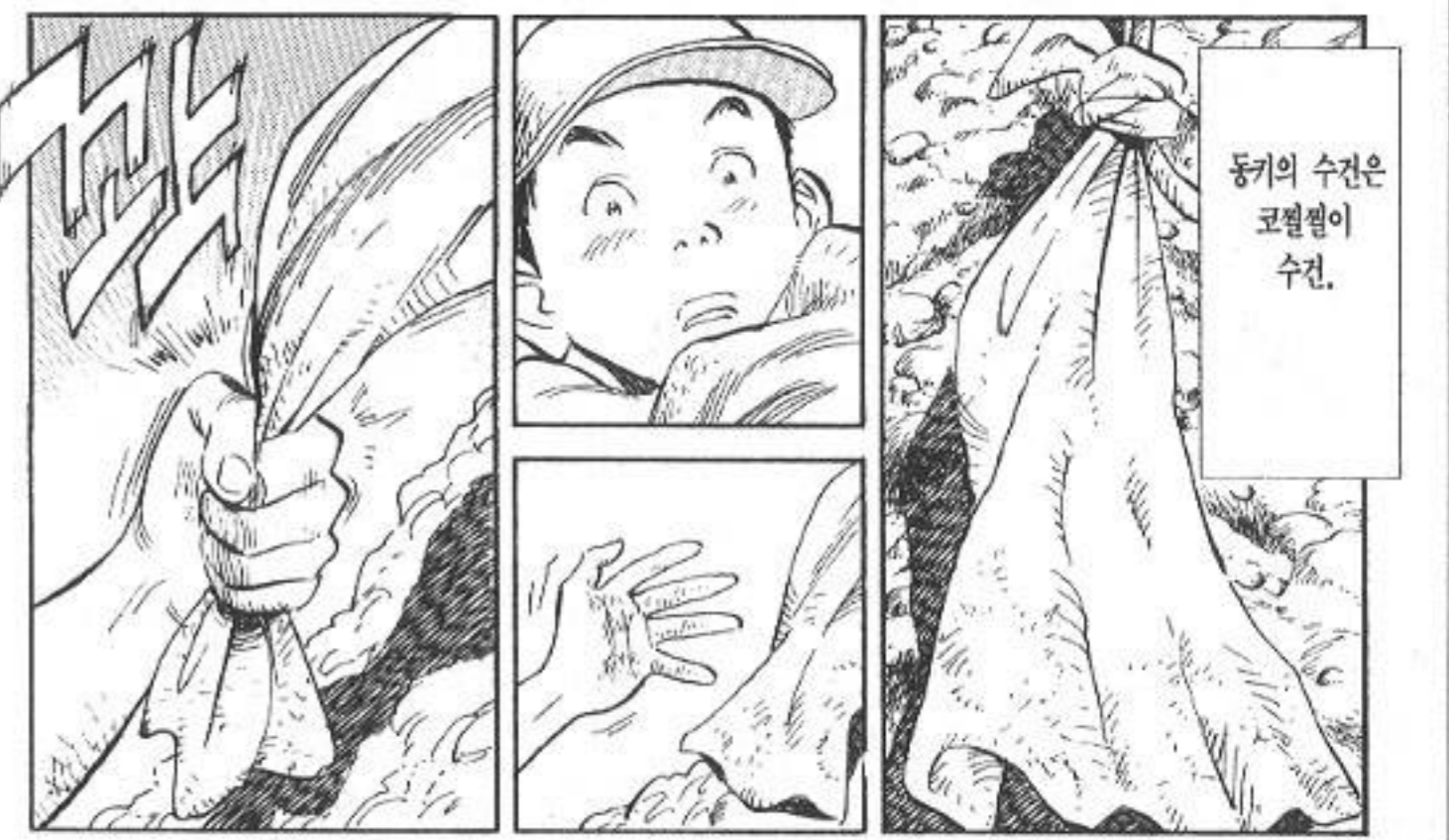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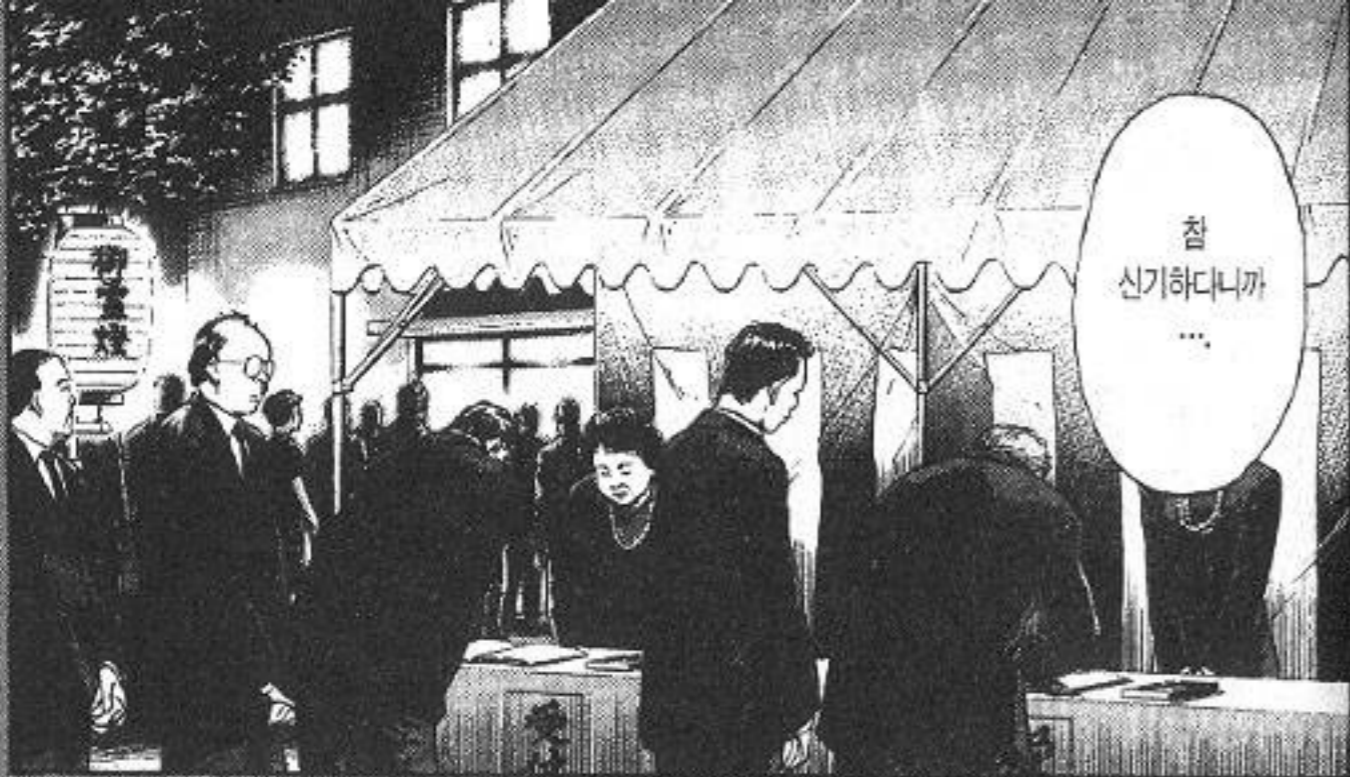
북...
북르다...



빨리~!







참
신기하다니까
...



아니, 동키네 형제
말야.
저렇게 많아도
옛날에는 다 구별이
됐잖아?

뭐가?



누가 동키 2호고
누가 동키
3호인지...

근데 어른이 되니까
누가 누군지
통 못알아보겠어.



그거라면
알아.
저기...

그보다
동키의 부인은
...?
엉뚱한데
감탄하지 마.



'켄지,
오랜만이야,
잘 있었어?'



동키한테서
온 거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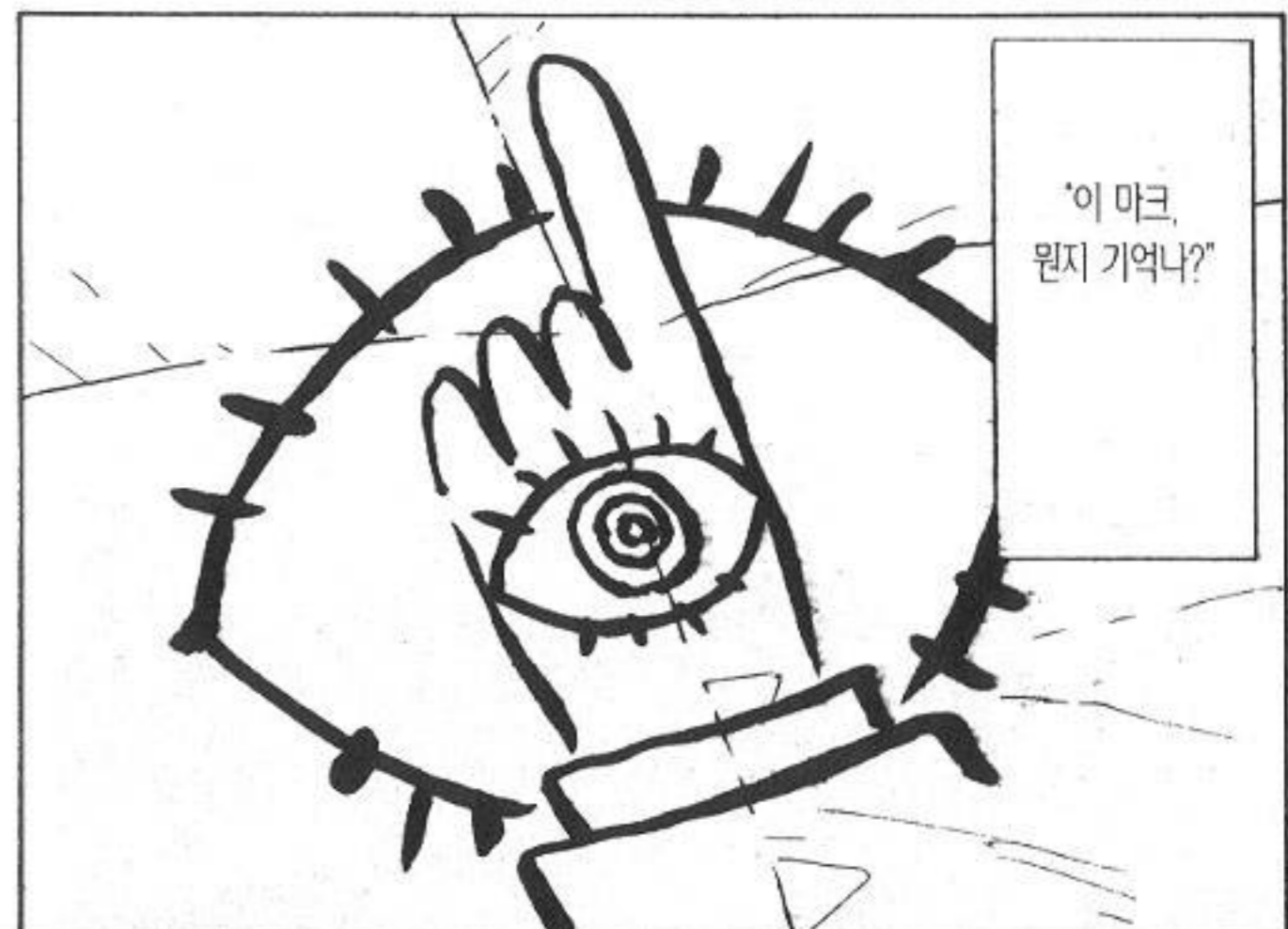


"갑작스레 편지에서
실례인 줄은
알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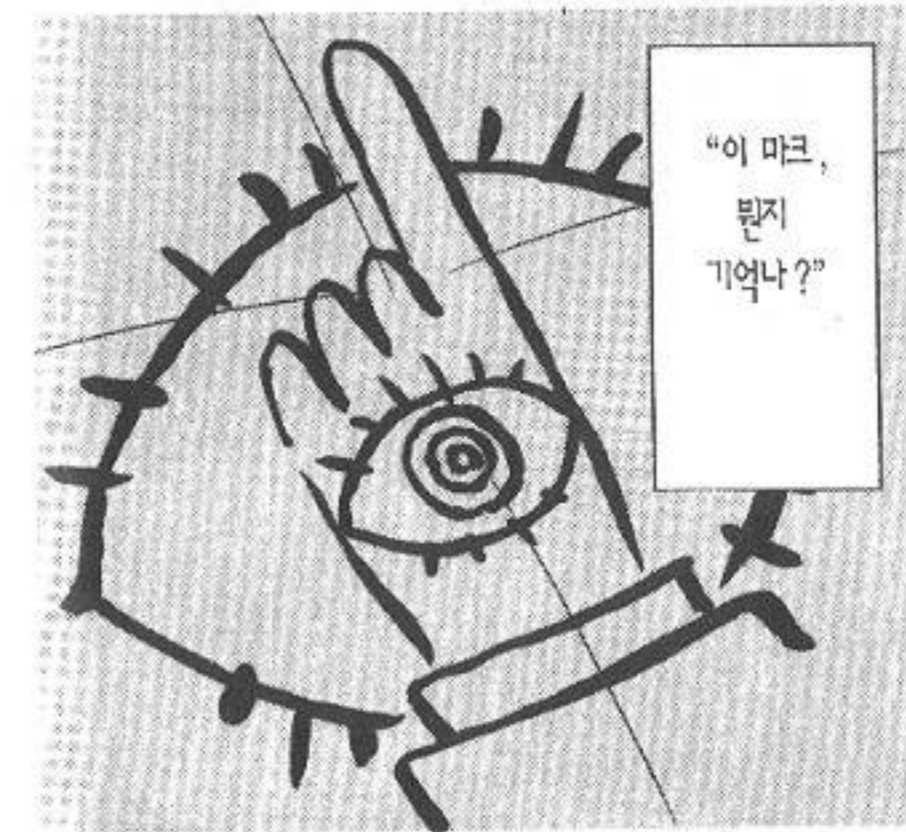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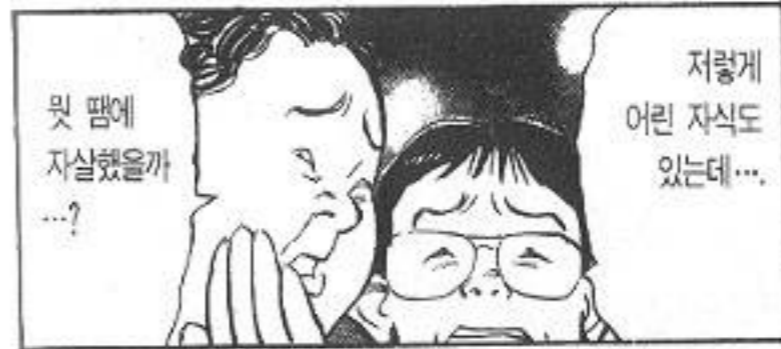
'나는
잘 있어'



...!!



'이 마크,
원지 기억나?'





뭐가 기왕 주는 거니까야!

초상집에서 큰소리 내지 마.



조익금 넌 만큼은 먹어 뒤라.

기왕 주는 거니까 먹어!

...어, 너네들까지 뭐냐!!



너희들 말마다나 초상집에서 떠들 생각은 없지만, 나는 이 편지를 받고...



뭐가?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야!



오랜만이다! 여전히 바보같이 노는군.

개굴 개굴.



여, 켜지!



와쿠 와쿠

와쿠 와쿠



극 소리도 많았고 초상 한번 잘 치렀습니다.



아- 고마워요.

맥주 하실래요? 스님.



돼지 같이 잘도 처먹네... 땡중 같은 게.



고인도 무척 기뻐하셨겠지요.

와쿠 와쿠



안그래...



하긴, 그 녀석은 지독하게 당했지.

그런 일로 죽을 놈이면 초등학교 때 벌써 죽었다.



고등학교 선생이 되고도 이지에 당했나?

무슨 고민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말이라도 하지! 섭섭하게...



난 별거 안했어.

케로용도 괴롭혔잖아.



아무튼 동키가 자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어이, 너희들...



그게 별거 아니냐.

수영 시간에 수영팬티를 감춰더니 그 녀석이 별거벗고 뛰어나는 정도였는데 뭐...



동키의 명복을 비는 술이야.

그러지 말고 받아.

아... 아니, 난 됐어. 그보다...



자, 우선 마시자구! 켜지.



바보 같이 말아.

못난 자식! 왜 하필 그렇게 죽었담?



아, 뭉. 오랜만이다! 해외에 나갔더니?

그저께. 일시 귀국했다가 동키 소식을 들어.

케로용도 왔어?



연하장만 겨우 주고받아서.

마지막으로 본 게 대학 졸업했을 때니까...

누가 그 녀석하고 얘기해 봤어?



자기 선생이 죽었는데, 우는 척이라도 하지.

문제이라도 있었던 것 아냐? 가르치는 학교 애들이 왔던데.

원인이 뭐래?



귀신 같은 건 없어.



다들 완전히 겁을 먹었지. 그래도...

오케이-!

나중에 공고 교사가 될만큼 웬지 이과 과목은 잘 하는, 과학적인 녀석이었지.



동기는 귀신 같은 걸 전혀 안 믿었어.

제발~!

부... 부탁해, 동키! 스위치만 켜고 와 줘!



우리는 2층 과학실 밑에서 망을 보기로 했어.



하지만 혼자 밤의 과학실에 들어갈 용기는 없었어.

끼가 다 죽으면 선생님이 노발대발 할 것 아냐

하지만 이 녀석은 겁에 가서는 수조의 공기 펌프를 안 켜다는 걸 떠올렸지.

난 그날 수조 청소 당반이었어.



밤마다 가츠마타의 유령이 나타나서 봉어 해부를 하니까.



그중에 동키도 있었어.



역시 난 이런 시간에 과학실에 들어가기가 싫어~!

릭~ 른 가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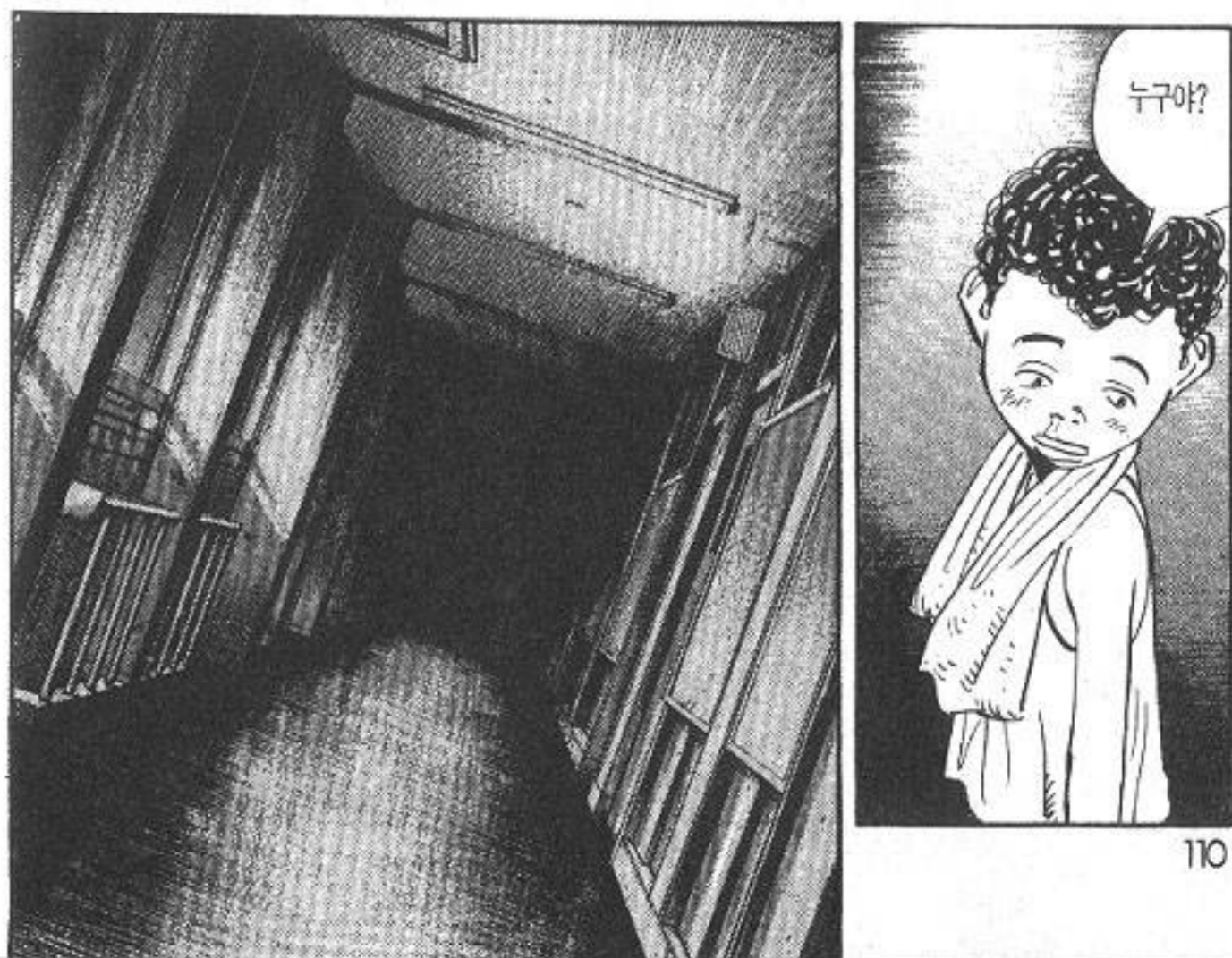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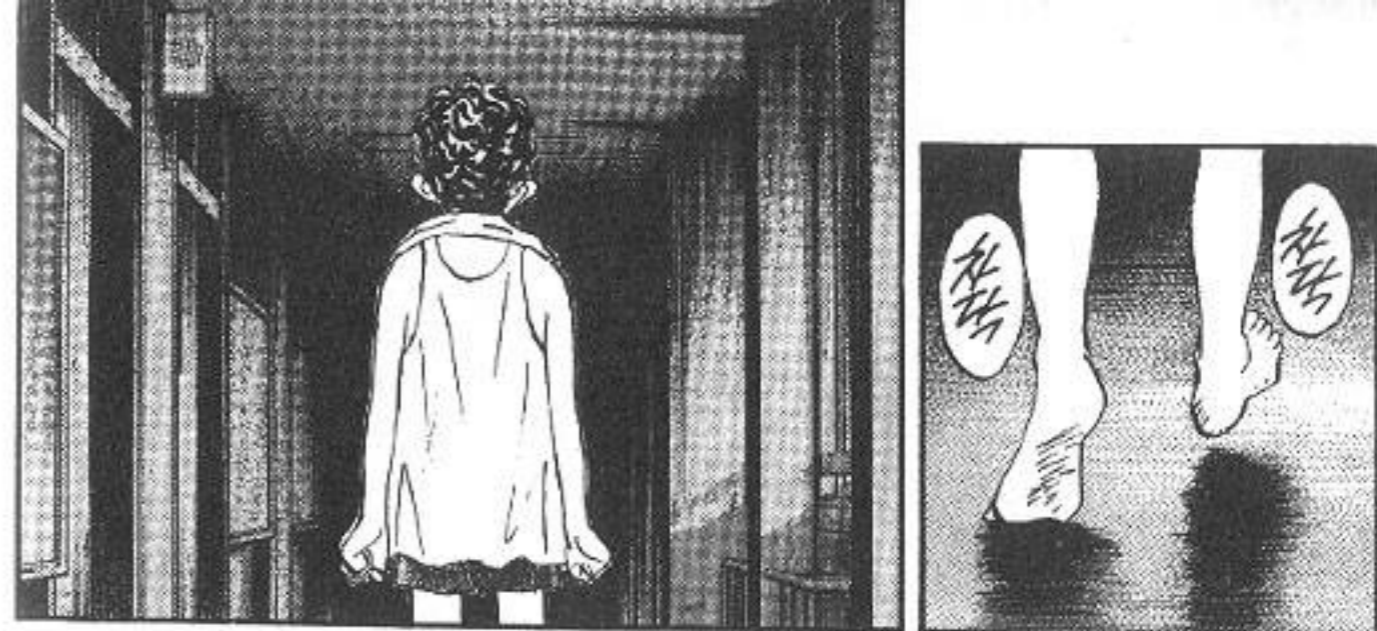


...그래서 애들을 불러냈지...





과학실







동키는 그때
뭘 본 걸까...



들어봤지만
말하려 들지
않았어...



동키 너석, 이번에도
뛰어내려도
말짱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



내...
생각엔
말야...



이번에도,
옥상에서 뛰어내려도
말짱할 거라고...

그때, 2층에서
뛰어내리고도
말짱했던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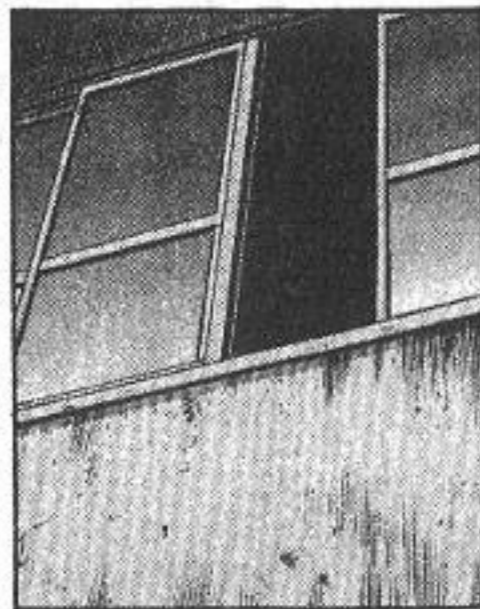
그래서
2층에서
뛰어내린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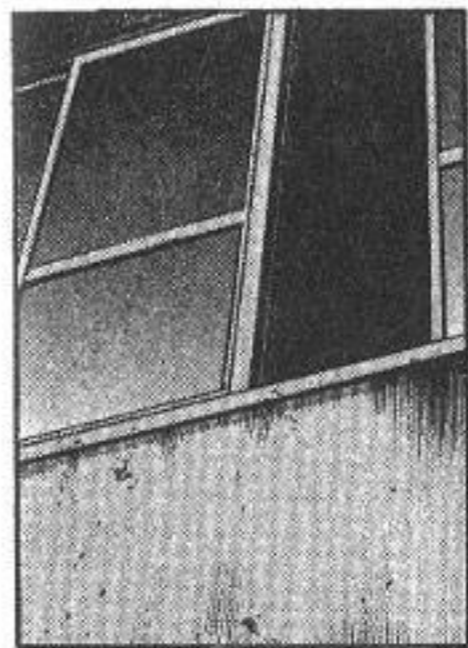
동키는
뭔가를 봤어!



나...



나...



나
왔
다
!!





마사오!!

아- 치유된다...

제6화
달에 쫓은 깃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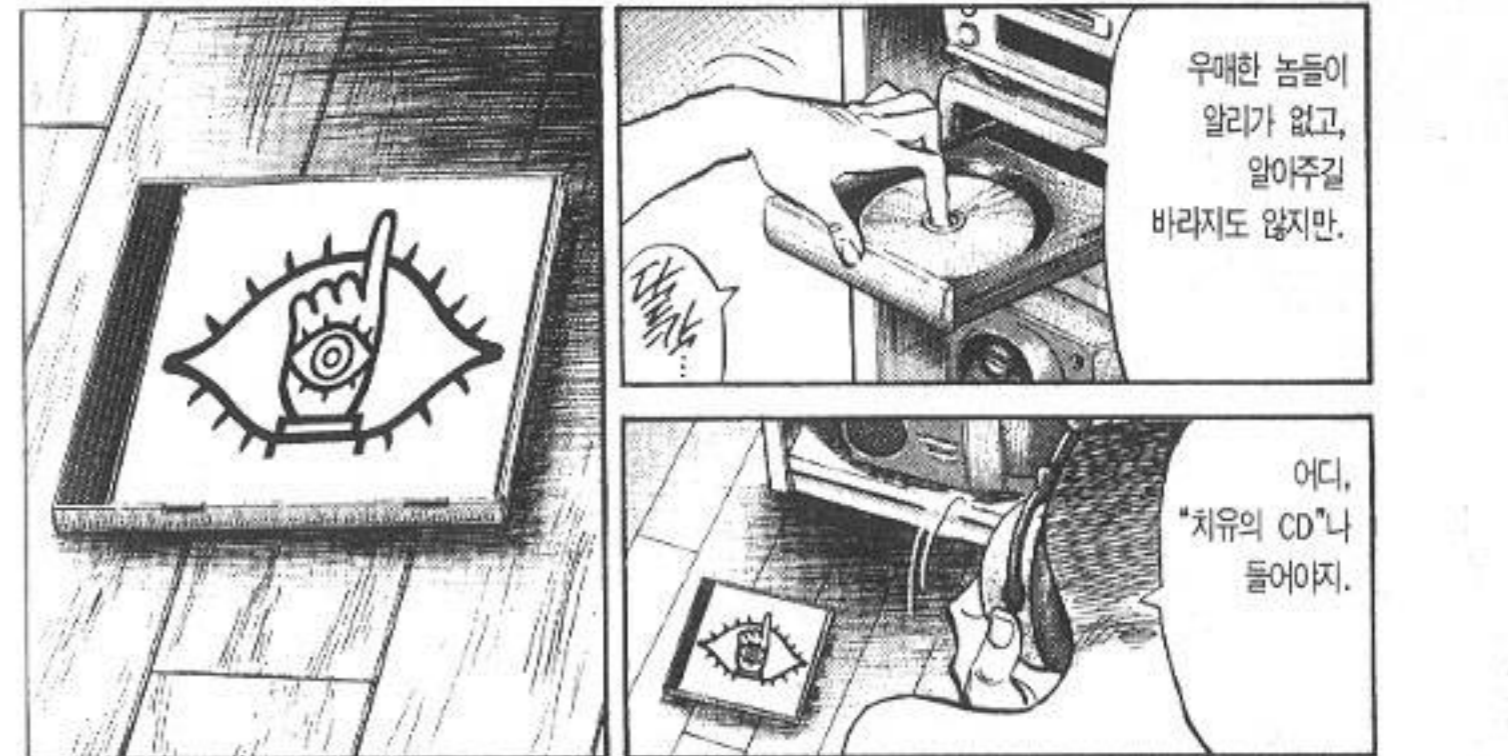
뭔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인간들이야, 녀들은!

마사오-!

뭘 몰라! 정말 뭘 몰라!

아침 "치유체조"가 집중이 안되잖아!

아~ 거 되게 시끄럽네!



우매한 놈들이 알리가 없고,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지만.

어디, "치유의 CD"나 들어이지.



마사오!!

췌가 췌가



좋은
질문이군요.



"친구"여,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요새가
있습니다.

들만이
펼쳐져
있습니다.



눈을
감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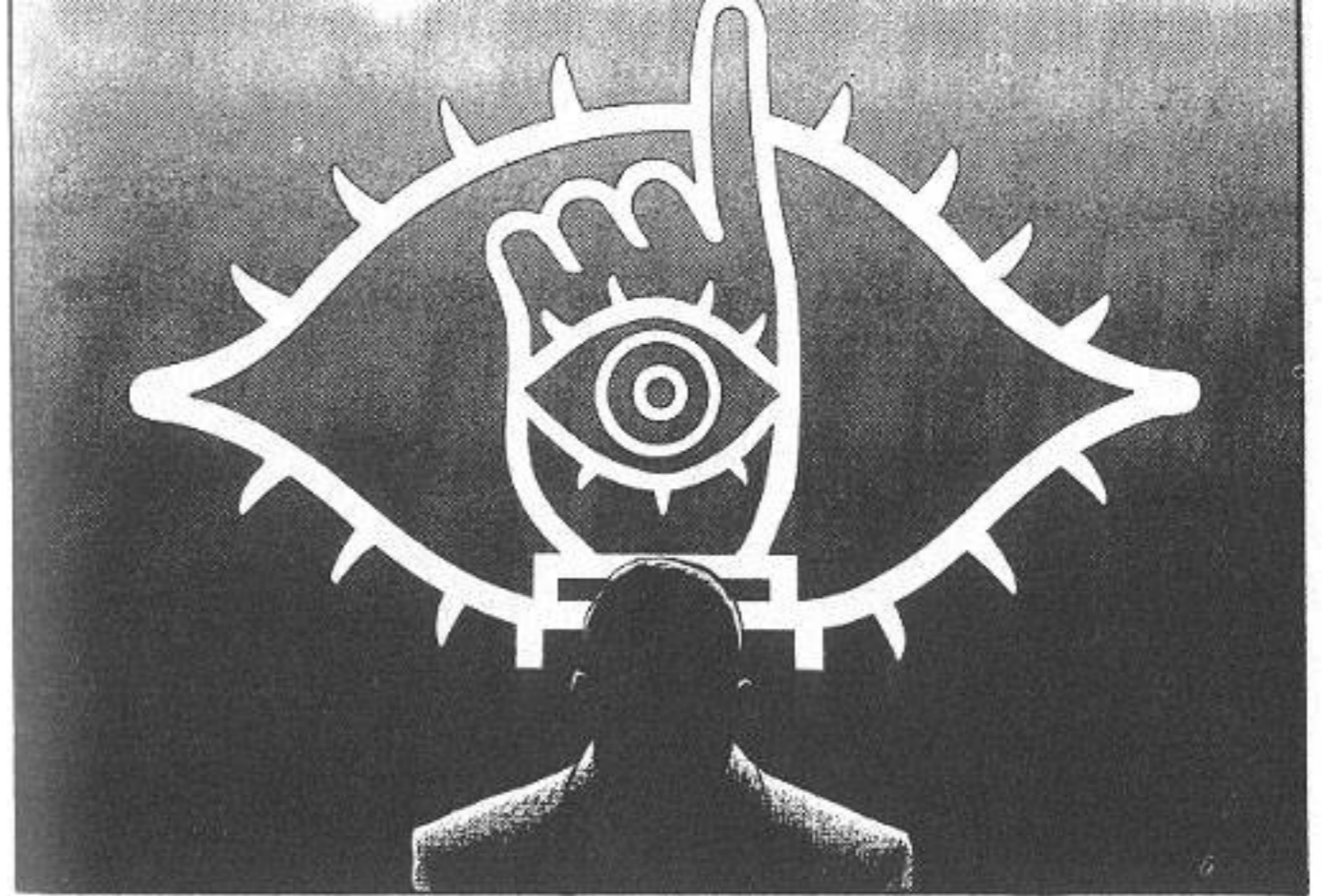


그곳은 우리의
비밀기지...

거기서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풀을 이어 만든
비밀 은신처...



좋은
질문입니다.



"친구"여, 참된 의미로
치유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작작작작
작작작작
작작작작
작작작작
작작작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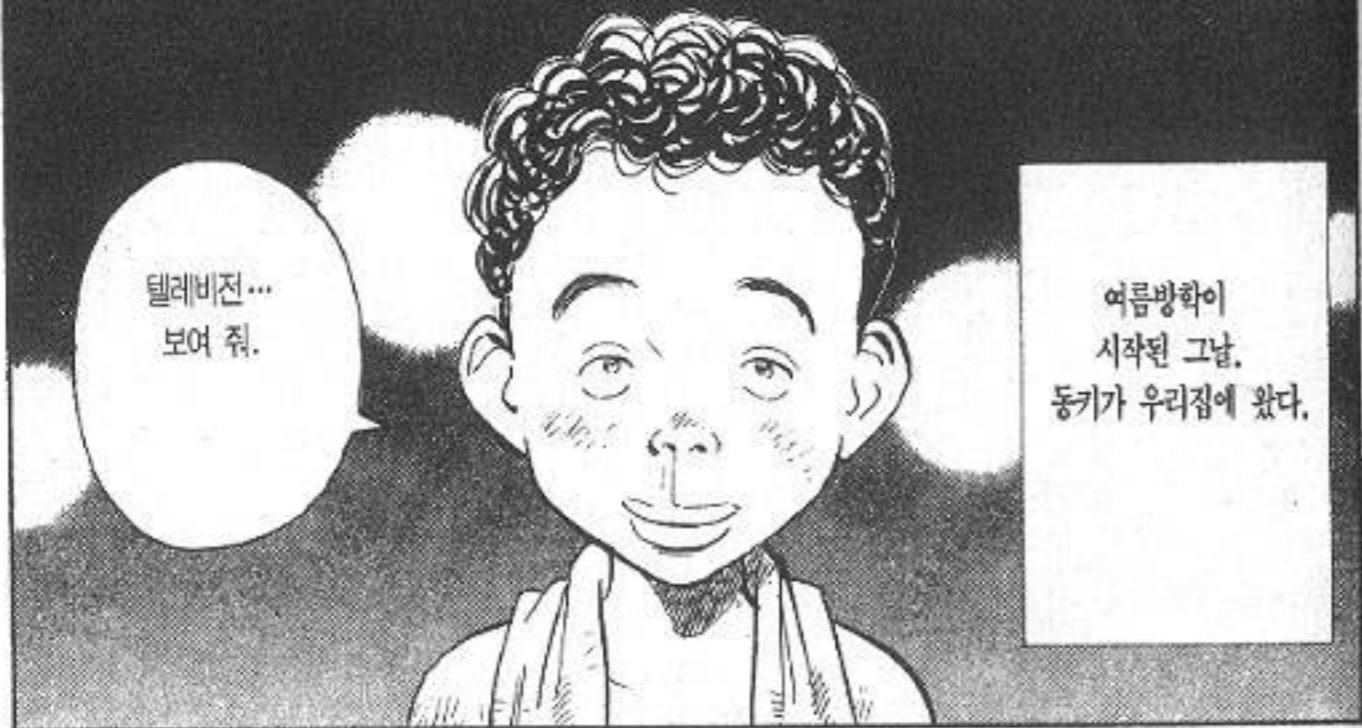
작작작작
작작작작
작작작작
작작작작
작작작작



그것이 곧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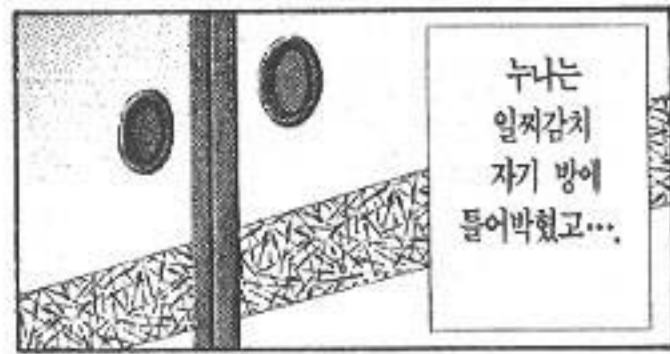
나와 함께
하는 것.





텔레비전... 보여 줘.

여름방학이 시작된 그날, 동키가 우리집에 왔다.



누나는 일찌감치 자기 방에 들어박혔고...



동키네 집에는 TV가 없었나보다.



아버지는 즐기 시작했다.

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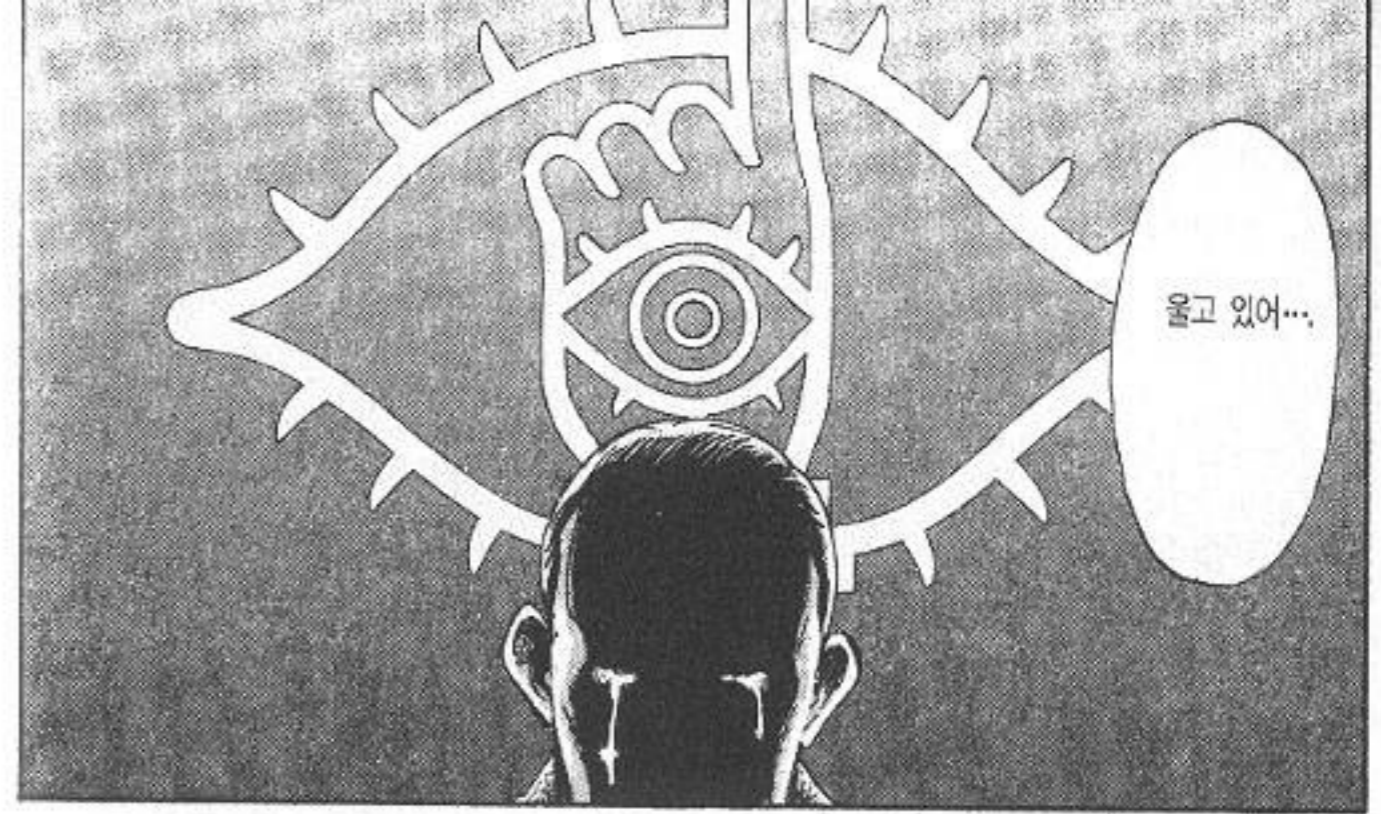
백날 봤자 똑같아. 포기해!

탁악

너네들, 대강 보고 자라!



그래도 우리는 계속 TV를 보고 있었다.



울고 있어...



어?

미안하다, 벌써 문 닫았...



1969년- 7월 20일.

계세요-?



어...



애, 너 친구 맞지?



켄지- 켄지-!

왜?



즐음이
사정없이
덜쳐...



즐음이...



나는 방바닥에
무사착륙 했다.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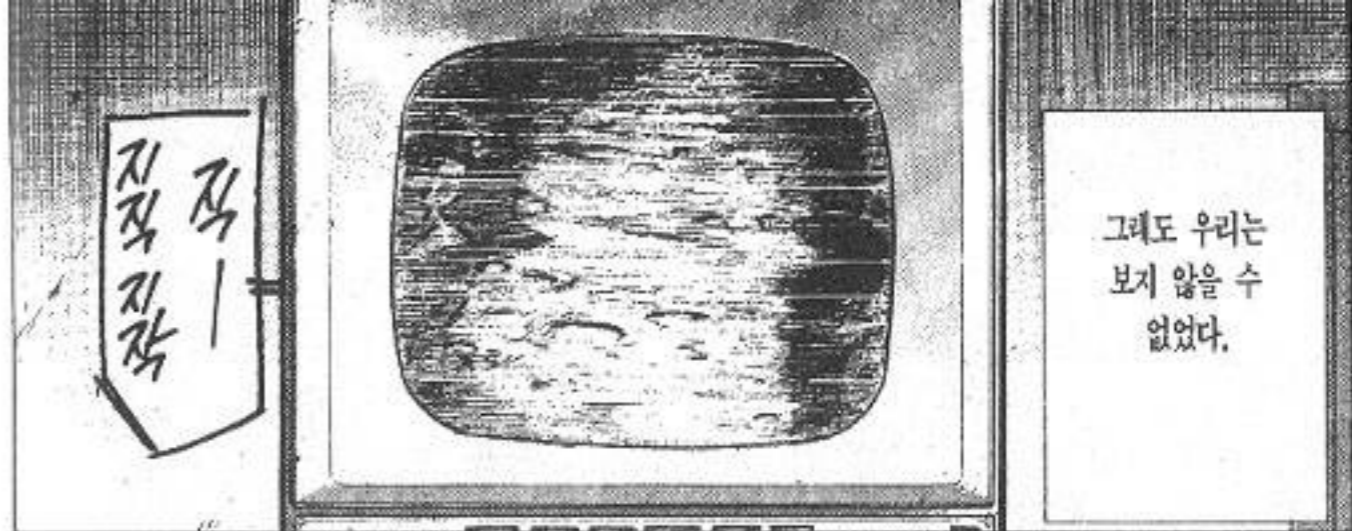
안녕-

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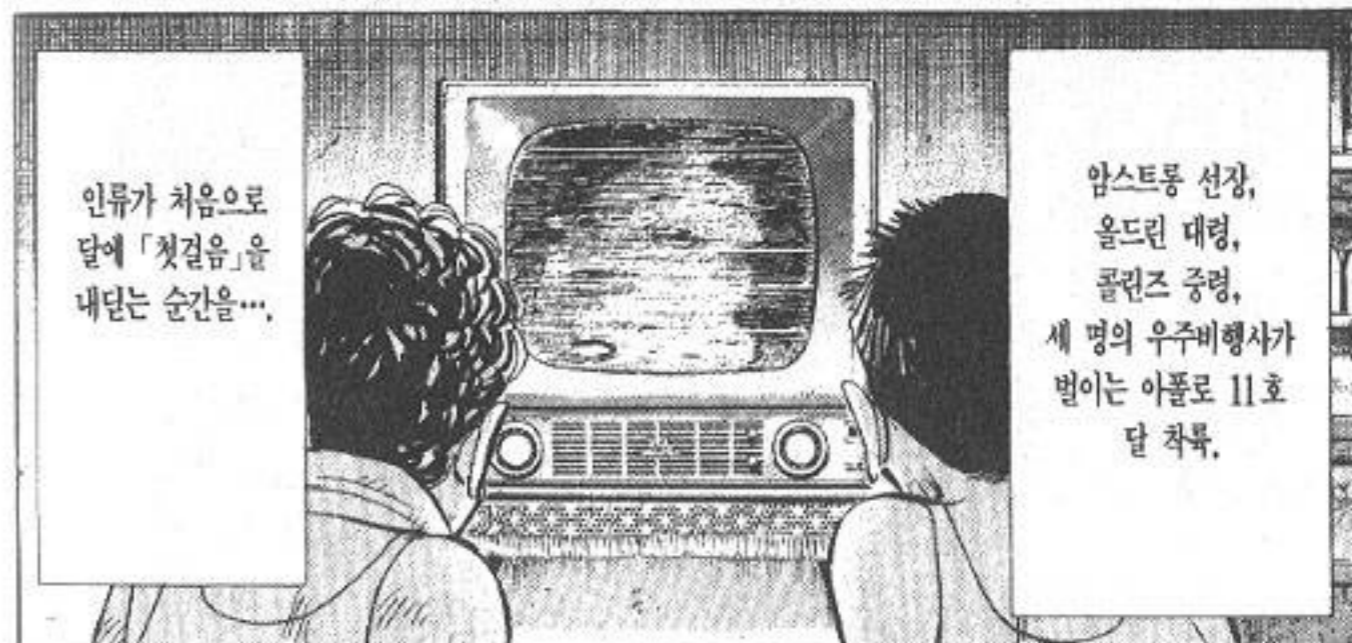
깜깜
깜깜
깜깜

깜깜
깜깜
깜깜



직직
직직
직직

그래도 우리는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을...

암스트롱 선장,
올드린 대령,
콜린즈 중령,
세 명의 우주비행사가
별이는 아폴로 11호
달 착륙.



에-
착륙선의
상태는,
에-

에- 케네디
우주센터로
부터-

뭔지 모를
후백 화면만
지직지직
거리고...

억양 없는
동시통역이
거기에 박차를
가해...

직직
직직
직직



...그러나
사태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기다려, 동키,
어떻게 됐다고?



동키!

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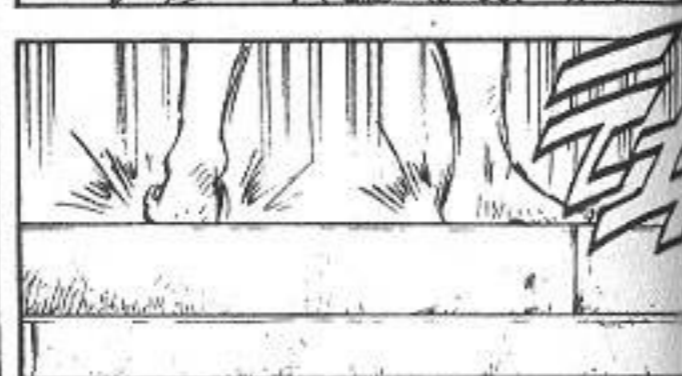


「이 한 걸음은 작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약진이다!!」



동키 ~!!

비틀 비틀



뭐어?

우리도 달표면에 깃발을 세우자!!



난 5시까지 봤다.

난 새벽 4시까지 봤는데, 아무일도 없었어.

그치?

재미 하나도 없더라. 아폴로 11호.



개, 너네 집에서 봤었어?

하지만 동키 녀석은 아직도 TV앞에 죽치고 있던데...



착륙은 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



어...

놀러 가자고 해도, 들은 척도 안해...

난들 아냐.



굉장해, 굉장해 - !!

해냈어 -!
해냈어 -!!



동키...



클린즈 중령이 안됐어...



1969년 7월 20일,
일본시각 7월 21일
오전 11시 56분
20초,
인류는 마침내
달에 섰다.



뭐어?



"켄지,
오랜만이야.
잘 있었어?"



1997년-



썩앙



나도 달에
갈 거다-!



"이 마크
뭔지 기억나?"

"갑작스레
편지해서
실례인 줄은
알지만..."



131



"나는
잘 있어"



그래도
...



워나,
저 녀석?



달 주위를
빙빙 돌기만
한...

달을 밟아 본
암스트롱 선장과
올드린 대령은
좋겠지만...

130



이상한 사상을
불어넣었다고...

무슨...
나쁜 "친구"가
...



마사오인가
하는...
그 부모가
의논을
하러 와서...

아마...
오차노미즈
공과대학에
들어갈 만큼
우수한 앤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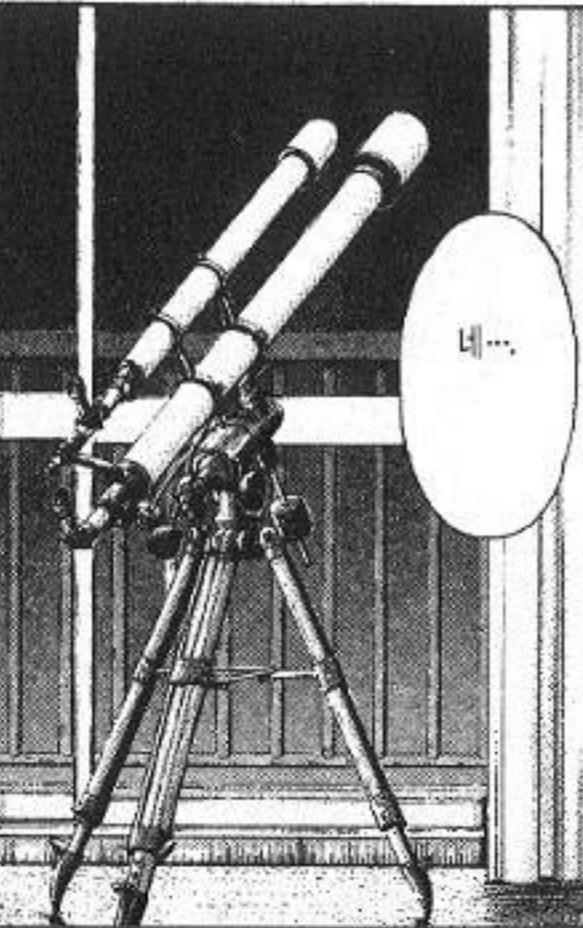
전...

아주머니...!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연락할게"
라고 쓴 사람이
...



네...



동키는
...



아직도
저길로
달을 보고
있었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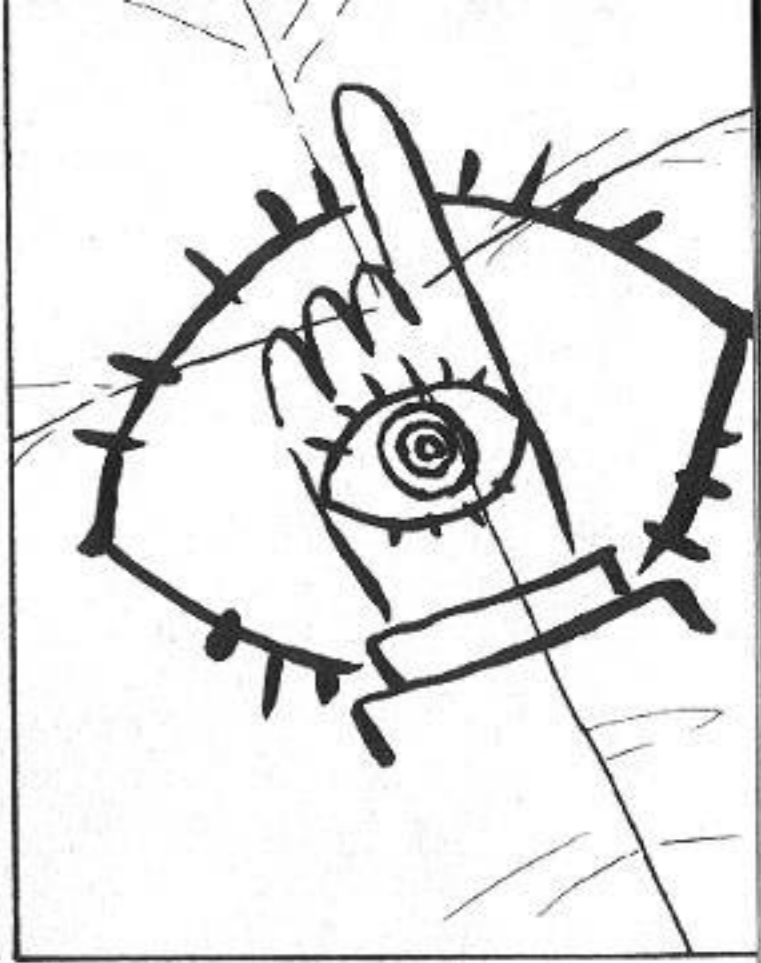


"이제 오랜 옛날
일이나까 기억 못할지
몰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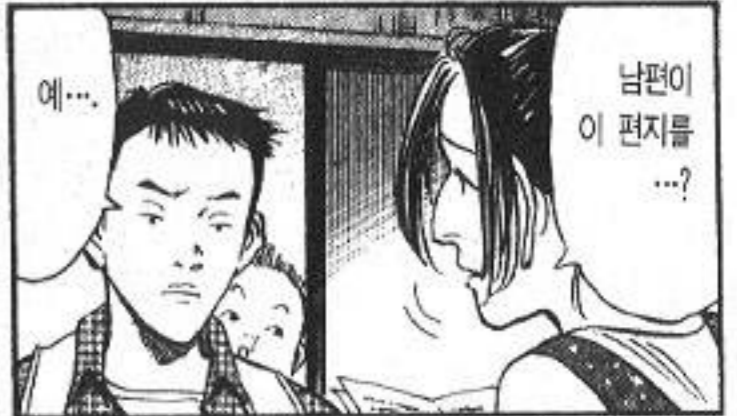
"오늘은 이만
줄인다...
또 연락할게"

"언제
시간을 내서
천천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아...
저, 저희는
부군을 동키라고
불렀는데...

동키는
...



에...

남편이
이 편지를
...?



하지만
...

집에서는
일 얘기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옛
제자?

요즘,
옛날 제자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뭔가 고민이
있었다거나...?



언제나
뺨발로 달리던
동키...

동키...



나는 너처럼
달릴 수 없었다.

동키...

제7화 소프트볼



"우리도
달표면에
깃발을 세우자"

달에 가고
싶어했던
동키...

동키...

돌아가는 길에,
크고 둥근 달이
떠 있었다.



동키가 꿈꾸던
달에는...

그때 동키가
세우려 한 깃발이
어떤 깃발이었는데는
모른다.



지금도
1969년의 깃발이
꽃혀 있을까.

